

재보선 안갯속 혈전 ... 與野 초긴장

전주 민주-무소속 연대 선거 양상 복잡
인천 부평을 진검 승부·경주도 초박빙

4·29 국회의원 재보선이 열흘 앞으
로 다가왔지만 전주 덕진을 제외하고
각 지역구 표심의 향방은 아직 오리
무중이어서 여야 지도부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일단 여야는 저마다 각 지역구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
치권에서는 당일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인천 부평을의 경우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와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오차범
위 내외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인천
부평을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펼
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재훈 후보가 호남 출
신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 표심은 물론
호남 지지표를 흡수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 성향
의 후보군이 분열함에 따라 민주당
홍 후보가 오차범위 이상의 지지를
격차를 나타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광철 후보가 20% 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무소속 신 후보를
이기고 있고, 이 후보가 경선으로 뽑
은 사실상 전주 시민의 후보이기 때
문에 앞으로 이 격차는 더 커질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측은 출마 선언이 늦어 아
직은 지지율이 낮은 상태지만 덕진의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연대가 본격
화됨에 따라 지역에서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이계인 정종복 전 의원이 한나라
당 공천을 받고, 친박계인 정수성 예
비역 육군대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주에서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조직력에서 강점
이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
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정수성 후보 측에서는 최근
경주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지지선언에 나섰다는 점에
서 승기를 잡았다는 입장이다.

전주 완산갑은 민주당의 뒷밭이지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9일 오전 한나라당 홍준표원내대표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후문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위) 같은 날 민주당 정세균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영아다방네거리에서 지원유세 중 서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 노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일정 부분 전가된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노무현 변수' 재보선 승부 가르나
수사 결과 따라 국면 전환

‘노무현 변수’가 재보선 승부를
가를까? 재보선은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 4·29 재보선에서는 전개되다
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야 모두 내부분열로 덧밥에
서 치열한 계파전을 벌이는 것이 한
계적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진영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박연자 게이트’라는 회오리가
‘경제살리기’나 ‘정권 실판’의 이
슈를 집어삼키는 형국이기 때문
이다.

특히 박연자 회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거론돼온 여권 실
세들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공산이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주 노 전 대통
령을 소환, 사법처리에 착수하면
그 과정은 가끔 어려워진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는 민주
당에 다소 타격을 주었다는 대
체적인 분석이다. 여론조사기관
인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달전에 비해 2.7% 포인트 하락
한 14.2%에 머문 반면 한나라당
은 4.1% 포인트 상승한 34.7%를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영향을 미친 셈이다.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에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소
환 및 사법처리가 현실화하거나
반대로 노 전 대통령의 완강한 대
처로 실패할 경우의 민심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양날의 칼'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이 비리혐의로 구
속 등 사법처리될 경우 민주당으
로서는 상당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연자 회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거론돼온 여권 실
세들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공산이 있다.
이는 한나라당에 불리한 시나
리오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캐내는데 실패할 경우 사
태는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7일 천신
일 세종나모여행사 회장의 10억
원 수수سل 등 3대 의혹에 대한 진
상조사를 주장하며 ‘현직 대통령
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은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이후 역공을 대비
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경선 ‘丁-鄭 대리전’?

박병석·이미경·이강래·이종걸 등 출마 거론
재보선 결과 따라 계파간 정체성 가속화 예고

전주 4·29 재보선이 정세균 대
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간 대
결 구도로 치러지면서 내달 15일
까지 치러질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
표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는 정 대표와 정 전
장관간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가
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
이다. 물론 여기에는 재보선 성적
표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19일 현재 당 안팎에서 자진타
천으로 물망에 오른 후보군은 10
명 정도. 이 중 3선의 박병석 정책
위원장과 4선의 이미경 사무총장,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이
주류에 속한다. 김 위원장의 경우
교과위원장직을 중요하게 여겨
주장하는 등 정세균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에 주도적으로 나서왔
다. 이강래 의원은 범 정동영계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박 위원장과 이 총장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정 전 장관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지난
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원혜영 원
내대표와 단일화, 뜻을 접었던 김
위원장은 당내 386그룹의 맨ья경
으로 정 전 장관의 출마를 명예서
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했었다.

반면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했던 이강래 의원(3선)과 비
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 공동대표
인 이종걸 의원(3선) 등은 비주류
계로 분류된다. 이종걸 의원은 지
도부의 공천배제에 반발, 조기 전
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교체론까지
주장하는 등 정세균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에 주도적으로 나서왔
다. 이강래 의원은 범 정동영계로

분류되며 정 대표, 정 전 장관과 마
찬가지로 전복 출신이다.

여기에 충북의 흥재형 의원(3
선)도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
다는 후문이다.

당 안팎에서는 재보선에서 수
도권 승리 등을 통해 의미있는 성
적을 거둘 경우 정 대표 체제가 탄
력을 받으면서 주류쪽 인사에 무
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다.

반대로 성적이 저조할 경우 비
주류계 후보들의 목소리가 커질
공산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지도부
책임론 등과 맞물려 원내대표 경
선이 재보선 후 계파간 첫 전면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안야당
이나 강한 아당이냐’를 둘러싼 주
류-비주류간의 정체성 논쟁도 가
속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27일까지 원내대
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다
음달 9일께 후보등록을 실시할 예
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안 처리” “대폭 삭감”... 진통 예상

■ 국회 이번주 추경 등 본격 심의

4월 임시국회가 19일로 종반을 향
하면서 이번 주부터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
는 한편 비정규직법 등 창정법안 심
의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이 침해하게 대
립,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추경안 대립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공청회에 이어
17일부터 종합 정책질의에 들어가는 등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심
사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오는 21
일까지 사흘간 질의를 실시한 뒤 23~24일, 27~28일 나흘 간 추경안
조정소위를 열어 심사를 마무리짓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
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재정확대를 통
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만큼 정부
가 제출한 28조9천억원 규모의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7조2천억원의 국채 발행으로 이를
‘빚더미 추경’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진통이 불
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성장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해 발생
한 세입 감소분 12조2천억원에 대해
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한 세출삭감과
소득세·법인세 인하 시기 연기 등을
제기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창정법안 대결 = 비정규직법 개
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7월부터 고용
기간 제한이 적용돼 ‘실업대란’을 막

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인 환경
노동위에 법안 상정조차 안 된 상태
다.

환노위는 일단 20~21일 전체회의의
를 개최하지만 주미애 위원장을 비롯
해 민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부
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상
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번주 초 조세
소외를 엊따고 열고 1가구 다주택자
에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
정이다. 그러나 지난 임시국회에서 1
가구 3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를 60%에서 45%까지 낮춰놓은 데
이어 이번에 또 양도세를 낮추는 데
대해 아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언제나 한발 앞선 서비스와 품질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년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던 (주)광고을 광고기업이
(주)경원애드는 상호로 변경되어 새로운 혁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광고를 위한 1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자세로
광고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요소들을 융합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는

종합광고대행사 - 경원애드 대표이사 이나호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92-3번지 일우빌딩 10층
대표전화 : 045) 828-6363 FAX : 045) 828-5012
홈페이지 : www.kwad.co.kr